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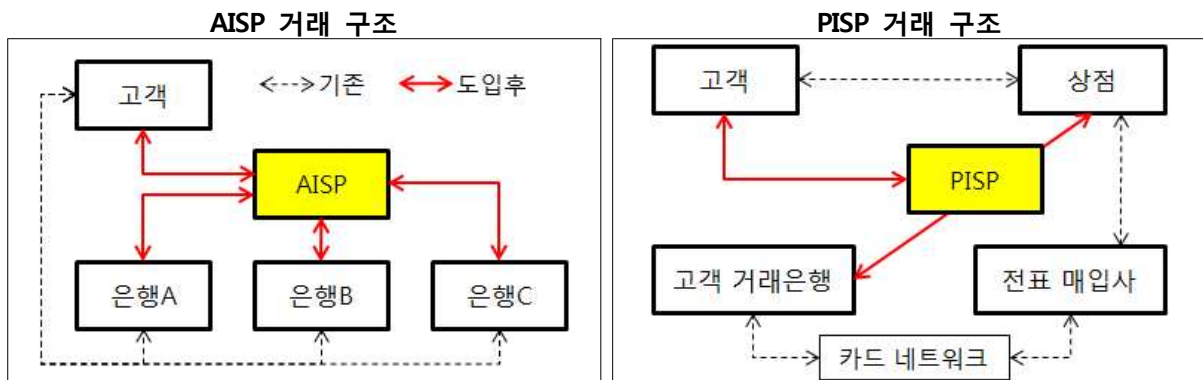
데이터 플랫폼의 확산과 금융시장의 과제

강 준 영(미래전략개발부, kangjy@kdb.co.kr)

- ◆ 최근 EU는 PSD2를 시행, TPPs 사업자 요청에 따라 국내 은행은 '금융데이터 공유 의무'를 부담
 - 이는 '금융 데이터 플랫폼'의 형성과 금융서비스 분야의 '경쟁'과 '혁신'을 촉발
- ◆ 유럽을 시작으로 금융데이터 공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, '금융 플랫폼 비즈니스' 본격화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

□ 최근 EU는 PSD2를 시행, 국내 은행에 대해 '금융데이터 공유'를 의무화

- EU는 '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'를 위해 개정 지급결제지침(PSD, Payment Services Directive)*인 PSD2를 '18.1.13일부터 시행'
 - * '07.4월 '유럽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통합'과 '안전한 지급결제 및 소비자 보호'를 위해 제정된 EU역내 통일 규정
- 이에 따라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(TPPs, Third Party Payment Services)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럽 은행은 '금융데이터 공유 의무'를 부담
 - 기존에는 은행의 의사에 따라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개한 반면, PSD2 이후에는 고객 동의를 득한 TPPs 사업자*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
 - * 모든 계좌를 조회하여 통합 관리하는 '계좌정보서비스 사업자(AISP,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)'와 고객의 계좌에 접근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'지급결제개시서비스 사업자(PISP,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)'로 구성
 - 한편, 은행의 금융데이터 공유는 일반적으로 TPPs 사업자에게 Open API*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현
 - *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는 전산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의 집합이며, Open API는 외부인이 은행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



자료 : Accenture('16,3월), "Seizing the Opportunities Unlocked by the EU's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" 참조하여 재구성

□ 데이터 공유 축적은 '데이터 플랫폼'의 형성으로 이어지며 '경쟁'과 '혁신'을 촉발

- 기존에는 은행이 금융데이터를 독점함에 따라 조건 협상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
 - 데이터 공유가 제한되어,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 상호작용이 낮은 수준
 - 과거에도 금융데이터(Open-API) 제공 시도가 있었으나, 공개 범위의 협소와 높은 수수료 수준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
 - * 국내는 '16.8월부터 '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'을 Open-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, '잔액 조회', '거래내역 조회', '출금이체', '입금이체', '계좌 실명조회' 등 5가지로 제한되어 있고, 이체 건당 400~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호응이 부족('17.10월, 국회 정무위원회)
- 데이터 공유 확대를 강제하는 PSD2 시행은 '금융데이터 플랫폼' 형성을 촉진하는 바, 고객 편익이 증가하는 한편 TPPs 사업자의 사업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
 - 고객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은행별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
 - * 일례로 계좌정보서비스의 일종인 '휴면계좌 통합조회', '내보험 찾아ZOOM' 서비스는 고객에게 단순한 편의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
 - 경쟁력 있는 TPPs 사업자에게 데이터 집중이 심화되고 이는 자연 독점효과와 맞물려 거대 '금융 플랫폼 기업'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
 - *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TPPs 확장을 본격화[Amazon(결제·송금서비스 '아마존 페이먼트'), Facebook(메신저 송금서비스), Google('구글페이'), Alibaba('알리페이'), Tencent('위챗페이')]
- 반면, 은행은 '경쟁 격화'와 'Back-end 전략(플랫폼기업 종속) 가능성'의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나 오히려 '고객 저변 확대'의 기회로 평가하는 시각도 상존
 - 'PSD2 시행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여긴다'는 비중이 유럽 71%, 아시아·태평양 63%, 북미 60% 수준[Accenture('17.10월), 은행 임원 대상 설문조사]
 - BBVA는 '17.5월 'BBVA API Market'을 런칭하고 '고객 소비패턴 분석' 및 '비금융회사와의 협업 강화'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

□ 유럽을 시작으로 금융데이터 공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, '금융 플랫폼 비즈니스' 본격화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

- 소비자 효용 제고라는 측면에서 '금융데이터 공유 확대'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
 - *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(끝장토론)에서 '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'가 논의(4차 산업혁명위원회, '17.12.21~22)
- 이러한 '금융데이터 플랫폼'의 확산은 은행에게 'Back-end 사업자'로 만족할 것인지, 아니면 '플랫폼 비즈니스 기업'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요구